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3. 2. 28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팩스 051) 797-4810

동향

2023.2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주요 동향	02
2. 국외 항만 주요 동향	10
3.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17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1 부산항, 신항 북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 착공
- 2 광양항, 사포1부두의 단일 운영사로 여천NCC 선정
- 3 포항항, 포항제철소 제2파이넥스 고로 가동 중단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1 중국,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역 활동 급증
- 2 LA항·롱비치항, 12월 컨테이너 처리일수 2.6일로 감소
- 3 EU, 러시아 디젤 연료 및 기타 석유 제품 수입 금지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1 컨테이너 무역 둔화로 공 컨테이너 적체 발생
- 2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전기로 공장 신설 계획
- 3 IEA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석유 수요 전망 상향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신항 북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 착공¹⁾

- ▶ 부산항만공사(BPA)는 2월 14일 '부산항 신항 북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을 착공함
- 본 사업은 부산항 신항 북컨 배후지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등을 갖춘 항만배후단지(52만 2천 m²)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1차 사업이 '23년 2월 14일에 착공함
- 1차 사업의 사업범위는 육망산 제거 사업으로 향후 10년('23~'33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 2차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은 2년('33~'35년)으로 총 12년에 걸친 본 사업의 사업비는 782,522백만 원임
- ▶ 또한, BPA는 육망산 지하공간에 무인자동화 석재공장 구축을 통해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문제 해소 및 석재의 적기 생산·공급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임
-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토사, 석재 등의 부산물은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 등 공공개발 사업에 공급하여 국가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할 예정임

부산항 신항 북컨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 대상 위치



자료 : 부산항만공사(2023.02.13.),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8918>(2023.02.20. 검색)

② 신항 양곡부두 건설에 한양 컨소시엄 단독 입찰²⁾

- ▶ 지난 2월 6일,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적격심사(PQ)에 한양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서류를 제출함
- 본 사업은 부산항 북항에 위치한 양곡부두를 부산항 신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총 사업비는 1,911억 원임
- 한양은 종합물류사인 KCTC와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에 입찰하였으며 설계는 한양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세일종합기술공사가 담당할 예정임

1) 부산항만공사(2023.02.13.),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8918>(2023.02.20. 검색)

2) MTN 뉴스(2023.02.06.),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3020616344643323>(2023.02.20. 검색)

- » 단독 입찰임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한양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 검토를 통해 큰 문제가 없으면 우선협상대상자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임
- » 한편, 본 사업의 추진을 두고 일부 업계에서는 민자활성화 방침과 어긋난다는 주장이 일고 있음
- 일부 업계는 '권리운영권 설정기간 단축에 대한 가점부과'가 사업자의 수익을 제한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투입은 확대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민자활성화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주장함

2) 인천항

① '22년도 항만배후단지 물동량 56만 5천 TEU로 최대치 기록³⁾

- » IPA에 따르면 '22년도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물동량은 56만 5천 TEU로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함, 부가가치도 2,573억 원에 이름
- '21년도 항만배후단지 물동량은 47만 8천 TEU를 기록하고 부가가치는 2,116억 원이었는데 '22년도에는 각각 전년 대비 18.3%, 21.6% 증가함
- 인천 신항배후단지는 '21년 개장이후 전년 대비 6배 수준인 4만 TEU를 기록하였으며 아암물류 2단지도 15만 4천 TEU를 기록하였음
- '22년도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고용실적은 1,949명으로 전년 대비 12.9% 상승하였으며 이 중 정규직 고용실적 또한 전년 대비 226명 증가한 1,602명임

② IPA 태국 선사 및 물류기업 대상 신규항로 및 물동량 유치 마케팅 활동⁴⁾

- » 인천항만공사는 태국 글로벌 선사 RCL을 방문하여 수도권에 인접한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환경에 대해 적극 홍보함
- 선복량 7만 TEU 수준의 세계 24위 선사인 RCL은 아시아, 인도, 중동 지역에 항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항에 정기항로 3개를 운영하고 있음
- 인천항만공사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RCL도 '23년 하반기에 인천항 추가 기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
- 동남아시아 지역 항만 및 해운·물류기업과의 교류 증가로 인천항의 네트워크 확대와 물동량 증대가 기대됨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3.2.13.),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menuKey=400&boardKey=217&articleKey=23900> (2023.2.24. 검색)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3.2.23.),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menuKey=400&boardKey=217&articleKey=23931> (2023.2.24.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사포1부두, 단일 운영사로 여천NCC 선정⁵⁾

-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사포1부두의 단일 운영사로 여천NCC를 선정, 동 부두에서의 하역 및 제반업무는 SY탱크터미널(SYTT)가 맡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사포1부두는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여 석유화학제품 생산의 기초원료인 나프타를 연간 최대 900만 톤 이상 반입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나프타 취급 부두임
-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사포1부두는 그간 투자자인 여천NCC와 SYTT,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 관련 3개사가 공동운영함에 따라 자사 화물 우선하역을 주장하는 등 운영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옴
- 또한 부두 운영과는 별개로 저장시설 사용료 조정 건이 문제가 되어 관련 업체간 10여년에 걸쳐 법정 분쟁이 지속되는 등 항만운영에 차질을 빚어왔음
- 이번 합의에 따라 운영 3개사는 상호간 '13년부터 진행해오던 저장탱크시설 사용료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였으며, 상호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함

② 이차전지 소재 생산업체, 광양항 배후단지에 510억원 투자⁶⁾

-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세풍항만배후단지의 첫 입주기업인 (주)CIS케미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세풍항만배후단지는 YGPA가 국내 최초로 지방 내륙산단이었던 세풍산업단지 33.3만 m²를 매입하여 지난 '22년 12월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됨
- 세풍항만배후단지에 처음으로 입주하는 (주)CIS케미칼은 고순도 알루미늄 등 이차전지 첨가제와 이차전지 양극재제조 전구체 핵심소재인 니켈, 코발트, 리튬을 생산할 예정으로 총 투자금액은 약 510억원 수준임
- YGPA는 우량 제조 및 물류기업의 광양만권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항만물동량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2023.02.13.),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_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380&category=\(2023.02.16.검색\)](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_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380&category=(2023.02.16.검색))

6)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2023.02.08.),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378&category=\(2023.02.09.검색\)](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378&category=(2023.02.09.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UPA), LNG병커링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 착수⁷⁾

- » UPA는 3월까지 LNG병커링 사업의 타당성 분석 용역을 착수할 예정임
- UPA는 LNG병커링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면 하반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LNG병커링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임
- 합작법인은 설립 공식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뒤 항만위원회의 출자사업 승인 및 HOA(주요조 건합의서) 체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JVA(합작투자계약서)를 체결하고 초기 자본금을 투자해야 함
- » LNG병커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의 협의 작업도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임
- 정부 정책에 동남권 병커링 사업 공유, 합작법인 출자협의, 친환경 선박 보급시행계획 등의 반영과 LNG병커링 선박의 신조 지원금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근거 확보, 울산항 SIMOPS(하역&병커링) 절차서 개발 관련 협력도 필요함
- LNG가 메탄올 병커링 확장성을 고려한 규제개선 및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안전절차 마련과 면세적용 등 규제 개선', '시범병커링 확대', '민간수요 창출' 등을 시행할 계획임

② 해양수산부, 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착공⁸⁾

- » 해양수산부는 2월 23일, 총 775억 원을 투자한 '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를 착공함
- 기후변화 등으로 태풍의 위력이 강력해지면서 울산항 인근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울산신항 동방파제는 준공된 지 25년이 지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황임
- 이에 해수부는 외곽시설 보강 및 방재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2011~2030)'에 따라 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를 추진함
- 정부는 2022년 공사 입찰공고 및 설계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6개 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를 시작하게 됨
- 이번 보강공사로 파랑의 재현빈도가 50년에서 100년, 내진등급은 2등급에서 1등급 상향 적용되며, 보강 구조물의 대형화로 안전성이 강화되고 공사기간이 기존 48개월에서 45개월로 3개월 단축될 전망임

7) 경상일보(2023.02.21.),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2192>(2023.02.22. 검색)

8)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02.22.), <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49284&searchSelect=title&searchValue=%EC%9A%B8%EC%82%B0%EC%8B%A0%ED%95%AD&boardKey=10&menuKey=9718&currentPageNo=1>(2023.02.23. 검색)



보강 구조물 대형화



자료: 한국농어촌방송(2023.02.22.), 원자료: 해양수산부,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87353>(2023.02.22.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평택항, 신규항로(BMX항로) 업무협약 체결⁹⁾

▶ 평택시는 지난 17일 동남아시아 신규 컨테이너항로(BMX항로)의 안정적인 운항과 활성화를 위해 평택시의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운항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개설된 신규 항로(BMX항로)의 안정적인 운항과 화물 유치를 위한 노력, 신규 항로 및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그리고 추가적인 항로 개설을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함
- BMX항로는 평택항을 출항하여 다렌, 텐진, 칭다오, 산터우, 홍콩, 셔코우, 난샤, 마닐라, 디바오를 기항하는 주 1항차 정기 항로이며, 'CMA-CGM SYDENY'호 등 4,500TEU급 컨테이너 전용선 4척이 평택항에 순환 투입하고 있음
-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BMX항로 개설로 연간 3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 유치와 그에 따른 하역 및 육상운송 등 관련 업계의 매출 향상, 항로 다변화를 통한 서비스 경쟁력 향상, 물동량 증대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운항 선사인 CNC LINE은 세계 3위 규모 프랑스 국적 선사인 CMA-CGM의 아시아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자회사로, 모회사인 CMA-CGM 그룹은 전 세계에 14개 자회사를 두고 257개 항로를 기반으로 160개국, 420개 무역항을 기항하고 있음

9) 평택시 보도자료(2023.02.20.),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0403060000&bIdx=284080&ptIdx=90>(2023.02.21. 검색)



6) 포항항

① 포항제철소 제2 파이넥스 고로 가동 중단¹⁰⁾

- »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모든 압연공장 복구를 완료하고 1월 20일부터 정상 조업체제에 돌입하였으나, 2월 15일 주요 생산 시설 중 하나인 제2 파이넥스 고로가 휴풍(blowing down)에 들어감
- 파이넥스 고로는 포스코가 독자 개발한 용선 생산시설로, 기존 고로와 달리 철광석과 유연탄의 원료 가공을 위한 공정(소결공정, 화성공정) 없이 용선을 생산하는 시설임
- 2월 11일 제2 파이넥스 고로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고로 온도가 목표치보다 최대 500도 이상 하락하여 정상적인 용선 생산이 불가하여 15일 중단을 결정함
- 파이넥스 고로는 기존 고로에 비해 완전 가동 중단에서 재가동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휴풍 및 전면 재정비에 들어간 후 2월 중 다시 정상 가동될 예정임
- 한편, 해당 고로의 조강생산능력은 연산 150만 톤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체 생산능력의 약 10% 수준임

10) 아주경제(2023.02.16.), [https://www.ajunews.com/view/20230216144122357\(2023.02.16. 검색\)](https://www.ajunews.com/view/20230216144122357(2023.02.16. 검색))

7) 동해·묵호항

① 동해항, 일본항로(교토, 마이즈루항) 재개 계획¹¹⁾

- » 동해항은 일본 교토의 마이즈루항 간 항로가 중단 2년만인 '23년 상반기 중 재개 및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함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3년 1월 한국해운조합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위탁운영 업체로 선정, 2월부터 본격적인 터미널 운영을 시작함
- 해양수산부·터미널 위탁운영 업체·선사·동해시는 일본 돗토리현청과 항로 운항문제를 협의, 올해 상반기 중 동해-일본 마이즈루 항로에 운항을 재개할 계획임
- 동해항은 러시아-일본항로에 컨테이너·RORO 겸용선을 투입해 운항할 계획임

11) 강원도민일보(2023.02.16.),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9382\(2023.02.17. 검색\)](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9382(2023.02.17. 검색))



8) 목포항

① '22년 목포항 항만물동량, 2,531만 톤으로 전년대비 5.9% 증가¹²⁾

-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2년 목포항 항만물동량이 2,531만 2천 톤으로, 지난해 2,389만 8천 톤 대비 5.9% 증가하였다고 밝힘
- 수출입 화물은 676만 1천 톤으로 전년 779만 4천 톤 대비 13.3% 감소하였으나, 연안 화물이 1,855만 1천 톤으로 전년 1,610만 4천 톤 대비 15.2% 증가함에 따라 총 물동량이 증가하였으며, 목포항의 수출입과 연안 화물의 비중은 각각 26.7%와 73.3%임
 -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출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전년 630만 7천 톤에서 482만 7천 톤으로 약 23.5% 감소함
 - 또한 조선용 기자재가 중심인 철재 화물은 선박 건조 기간에 따른 선박블록 생산량의 일시적인 감소 등으로 전년 454만 4천 톤 대비 415만 1천 톤으로 8.6% 감소함
 - 반면, 연안 화물은 목포-제주 간 RO-RO선을 이용한 연안 컨테이너 수송수요 증가 및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따라 도서와 내륙 간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수송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855만 1천 톤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②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상교량 사고방지 합동점검 실시¹³⁾

- »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해수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국토청)과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해상교량 사고방지 합동점검을 실시함
- 선박은 교량에 설치된 교량표지*를 보고 판단하여 통행로를 따라 교량 아래를 항행하지만, 시야가 불량한 경우 통행로 인근 교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 해양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 교량표지 : 교량의 시설물 보호와 교량 아래를 통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주간교량표지판, 야간교량등 등의 항로표지
 - 이에 목포해수청은 익산국토청과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및 보완사항 등을 발굴하여 항행위험요소를 개선할 예정이며, 특히 야간 통행 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각 기초 주변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임
 - 또한 합동점검을 통해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각 조치하고, 운항하는 선박의 시각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협력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

12)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3.02.06.),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96465>(2023.02.21. 검색)

13)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3.02.16.),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96667>(2023.02.21. 검색)



9) 대산항

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¹⁴⁾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환경부·해경·소방서 등 관계기관 간 안전관리 협조체계 구축 및 하역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대산항은 연간 처리 물동량의 80% 정도가 석유제품·원유 등 위험 화물로 구성되어 있음
- 그간 대산항에서 위험물 취급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으나 위험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안전관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하역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임

14) 연합뉴스(2023.02.22.),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21543000637input=1195m\(2023.02.22. 검색\)](https://www.yna.co.kr/view/AKR202302221543000637input=1195m(2023.02.22. 검색))

10) 군산항

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선박 블록 본격 양산¹⁵⁾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출항식을 개최했으며, '23년도 선박용 블록 생산 목표량은 약 10만 톤 임

-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10일 군산항에서 블록 첫 출하를 시작하며 '23년도 목표인 약 10만 톤의 선박용 블록양산에 돌입함
- 군산조선소에서 생산한 블록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로 해상 운송되어 컨테이너선 선박 건조에 활용될 예정임
- 전라북도도는 해군과 해경 합정의 정비와 성능개량에 기여하고 지역적으로는 조선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지역 관계자들은 군산조선소가 과거 연매출 1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군산지역 산업의 약 24% 비중을 차지했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15) 전라북도청 보도자료(2023.2.10.)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020&menuCd=DOM_0000001030030010000&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EA%B5%B0%EC%82%B0&dataSid=686630 (2023.2.21 검색)

11) 마산항

① '22년 창원해역 해양오염사고 건수 마산항 최다¹⁶⁾

» '22년 창원해역 해양오염사고는 총 7건, 해역별 발생건수는 마산항이 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함

- 오염원별로는 화물선이 가장 많았으며 모두 기기 파손에 의해 발생한 오염물질 배출사고임
- 최근 5년 평균 창원해역 해양오염사고 건수는 13건, 유출량은 2,552ℓ로 '22년 해양오염사고 및 유출량은 최근 5년 평균 대비 각각 36%, 86% 감소함

16) 경남데일리(2023.01.25.), [http://www.k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480\(2023.02.12. 검색\)](http://www.k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480(2023.02.12. 검색))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중국-동남아 국가 교역 활동 급증¹⁷⁾

- » 중국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 남서부 지역의 주요 항만들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무역량이 급증함
 - '22년 기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와의 교역은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춘절 연휴 기간에도 높은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음
- » 무역량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중국 항만의 통관 간소화 및 코로나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것으로 보여짐
 - 특히, 중국 루이리(Ruil) 항만은 중국과 미얀마간 교역이 활발한 항만으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통해 화물 처리 속도가 빨라짐
 - 또한 윈난성 국경지역에서의 방역 조치 요건이 완화되면서 시간과 비용 등이 절약됨
- » 중국 세계무역기구 연구소(China Institute for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따르면 지난 '22년 중국의 대외 무역 안정에 동남아 국가가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으며 '23년에도 해당 국가간의 교역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22년 중국의 아세안과의 총 무역액은 6조 5,200억 위안으로 수출이 21.7% 증가한 3조 7,900억 위안, 수입은 6.8% 증가한 2조 7,300억 위안을 기록함
 -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섬유, 철강, 하드웨어, 소형 가전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철광석, 카사바 전분, 납괴 등임
- » 한편, '22년은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 첫 해로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중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기록됨
 - 아세안은 경제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간의 교역량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②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한국 실질 GDP 0.16%p 확대 전망¹⁸⁾

- »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올해 2분기 경제 회복이 본격화된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면서 글로벌 경제 전망 기관에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3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전년 대비 2.1%p 높게 전망함
 - 특히 현재 중국이 발표하고 있는 각종 경기 부양정책의 효과가 발생하는 2분기 이후에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7) Global Times(2023.01.29.), <https://www.globaltimes.cn/page/202301/1284412.shtml>(2023.02.20 검색)

18) 한국무역협회 포커스&브리프(2023.02.12.), <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jsessionid=KITA=310B40FAICACEE1E85DA4D41A117F1A9.Hyper?pageIndex=1&no=2403&classification=1>(2023.02.20. 검색)

» 중국의 이 같은 경기 회복세를 가정한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함

-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은 0.16%p, 수출 물량은 0.55%p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함

2) 아시아

① 싱가포르항 1월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 동기대비 4.9% 감소, 코로나19 발생 전 '19년도 수준으로 감소'¹⁹⁾

» 싱가포르항의 '23년도 1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299만 TEU로, 코로나19 발생 전 '19년도 수준으로 감소함

- 1월 싱가포르항의 총물동량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8.6%) 감소한 4,762만 3천 톤을 기록함, 1월 물동량으로는 '16년 이후 가장 낮은 실적으로 기록함, 반면 벅커링 물동량 실적은 437만 7천 톤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함
-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수요가 개선될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봉쇄가 해제되고 있어 '23년도 하반기부터는 컨테이너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② 일본, 공급망 불안정 속 신규 화물노선 테스트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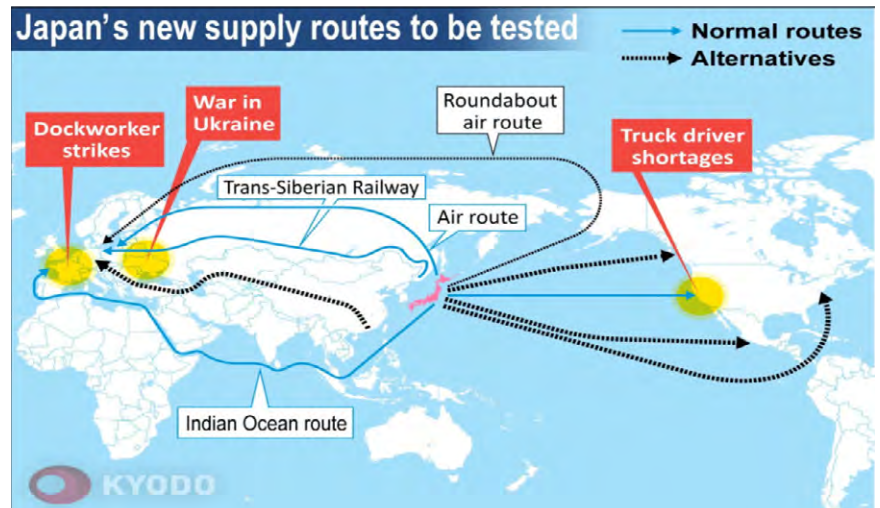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자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국제 화물노선을 테스트할 계획임

- 이번 테스트는 러-우 전쟁과 코로나19 등 국제적인 변수들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운송의 지연을 예방할 수 있는 대체 노선을 찾기 위함
- 예를 들면 최근 러-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를 경유하는 국제운송 노선이 제한되었고, 항공은 우회노선을 선택해야 했으며,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용도 줄어듦
- 또한 유럽의 항만근로자 파업과 수에즈운하 보급선 충돌 및 좌초로 인한 차단 등 다양한 리스크에 따른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함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원자재와 상품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품목운송 비용의 증가는 상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과 협력하여 대체노선을 이용함에 따르는 비용, 시간, 통관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19) 싱가포르 항만공사(2023.2.21.), <https://www.mpa.gov.sg/who-we-are/newsroom-resources/research-and-statistics>(2023.2.21 검색)

20) Kyodo news(2023.01.16.), <https://english.kyodonews.net/news/2023/01/31f886f81353-japan-to-test-new-freight-routes-amid-global-supply-chain-instability.html>(2023.02.09 검색)





④ 자와할랄네루항, 컨테이너 터미널 업그레이드 추진²¹⁾²²⁾

-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인도의 국제 무역 강화를 목적으로 자와할랄네루항 컨테이너 터미널 업그레이드를 위해 1억 3,100만 달러를 지원(대출)하기로 함
- 1억 3,100만 달러의 자금 조달 패키지에는 ADB의 일반 자본 자원에서 6,140만 달러와 ADB가 관리하는 아시아 선도 민간 인프라 펀드(LEAP)에서 6,960만 달러가 포함됨
 - 지원받은 자금은 기존 컨테이너 터미널의 정박지와 야드를 업그레이드하고 전기 크레인과 같은 장비 추가 설치에 사용될 예정임
 - ADB는 이번 재정지원으로 인도에 세계적 수준의 메가포트를 개발하고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인도의 경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④ DP World, 인도 초대형 컨 터미널 개발 입찰 낙찰²³⁾

- » 글로벌 항만 운영사인 DP World는 구자라트주의 디다알 항만 당국으로부터 초대형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을 낙찰 받음
- DP World의 인도 항만부문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약 28%로 추산되는데, 인도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통합 물류 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이번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관련 계약은 인도 정부 소유의 디다알 항만공사가 건설-운영-이전(BOT)하는 방식으로 체결함
 -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로 디다알항은 연간 219만 TEU의 처리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컨테이너 터미널은 21,000TEU급 이상의 선박이 접안 가능하며, 수심 14.5m에서 최대 18m까지 확장 가능함

21) Maritime Logistics Professional(2023.01.25.), <https://www.maritimelogistics.com/news/jawaharlal-nehru-port-gets-million-382399>(2023.02.09.검색)

22) Port Technology(2023.01.24.),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jawaharlal-nehru-port-gets-131-million-capacity-boost/>(2023.02.09.검색)

23) The National(2023.02.02.), <https://www.thenationalnews.com/business/economy/2023/02/02/dp-world-wins-bid-to-develop-mega-container-terminal-at-indian-port/>(2023.02.09.검색)

3) 미주

① LA항·롱비치항 12월 컨테이너 처리일수 회복세, 평균 체류시간 2.6일로 감소²⁴⁾

» 산 페드로베이에 위치한 LA항·롱비치항의 컨테이너 화물처리 일수가 5개월 연속 개선 되는 등 크게 감소함

- 지난해 12월 LA·롱비치 두 항만의 수입 컨테이너가 화물차를 통해 반출되기까지 걸린 평균 체류기간(dwell time)이 2.6일로 전달(2.8일)보다 0.2일 단축됨
- 철송 반출 화물의 경우, 12월 평균 체류 시간은 4.9일로 11월(9.1일)보다 크게 감소함
- 5일 이상 터미널에 체류한 화물 비율도 6.7%를 기록하는 등 가장 낮은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철송 화물의 경우 25.3%로 전월 대비 약 20%p 감소함
- 트럭 및 철도 등 LA·롱비치항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일수가 5개월 연속 개선되면서 북미서안항만의 혼잡 현상이 거의 사라짐

24) PMSA(2023.01.), <https://www.pmsaship.com/wp-content/uploads/2023/01/West-Coast-Trade-Report-January-2023.pdf>(2023.02.22. 검색)

25) Port Technology(2023.01.11.),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sti-takes-delivery-of-new-sts-and-rtg-cranes/>(2023.01.12.검색)

26) Container News(2023.02.15.), <https://container-news.com/apm-terminals-mobile-announces-us60-million-rail-expansion-project/>(2023.02.22. 검색)

② APM Terminals Mobile, 철도 인프라 확장에 6천만 달러 투자²⁵⁾

» APM Terminals Mobile은 모빌항 선로 추가, 철도 야적장 추가 개발, 선석과 야드 간 접근성 개선 등 철도 인프라 기능 확장에 약 6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함²⁶⁾

- APM Terminals Mobile은 2년간의 사업을 통해 작업용 선로의 총 길이를 3,658미터(12,000피트)로 확장하고 '25년까지 용량을 두 배 이상인 100만 TEU로 늘릴 예정임



4) 유럽

① EU, 러시아 디젤 연료 및 기타 석유 제품 수입 금지²⁷⁾

- » EU는 작년 12월 러시아 원유의 해상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 2월 5일 러시아 석유 제품 수입을 금지함
- 러시아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수익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로, '21년 한 해 동안 석유 및 천연가스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러시아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임
 - EU는 러시아 석유의 가장 큰 수입국으로, 작년 12월에 시행된 원유 수입 금지 조치는 러시아 원유 수출량의 1/5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이번 조치에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으로 구성된 G7은 디젤과 같은 고급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배럴당 100달러, 원유와 연료는 배럴당 45달러의 글로벌 가격 상한제를 제정하기로 함
 - 이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에너지 가격 인상을 피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분석됨
 - 해당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러시아 석유를 구입한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해운, 해상보험 등 모든 해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기로 결정함

27) TIME(2023.02.05.), <https://time.com/6253071/eu-embargo-russian-diesel/>(2023.02.09. 검색)



② 핀란드 주요 항만 2월 15일부터 파업²⁸⁾

» 헬싱키항 등 핀란드 주요 항만 노동자들과 트럭 운전자들은 2월 15일부로 근무를 중단하고 파업을 지속하고 있음

- 헬싱키항 등 핀란드 주요 항만 노동자들과 트럭 운전자들은 2월 15일부로 근무를 중단하고 파업을 지속하고 있음
- 핀란드 항만 노조에는 약 2천 명의 항만 노동자가 소속되어 있으며, '22년 영국과 독일 항만 파업과 같이 물가 인상을 반영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 핀란드 항만 운영자 협회는 파업으로 핀란드 무역의 90%가 영향을 받아, 매일 3억 달러 이상의 대외 무역 손실이 생길 것으로 주장함
- 또한 헬싱키항, 하미나-코트카항, 한코항, 라우마항 등 핀란드 주요 10개 항만이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발표함

③ MSC-머스크, '25년 1월 이후 2M 해체 합의²⁹⁾³⁰⁾

» 세계 1~2위 컨테이너선사 MSC와 머스크가 결성한 얼라이언스 2M이 2년 뒤 해체될 예정임

- '15년 1월 과잉 공급과 만성적인 저운임으로 컨테이너선 시장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시기에 결성된 2M은 10년 동안의 계약 기간 종료 후 얼라이언스를 종료하기로 합의함
- MSC는 '19년 이후 선단 확대에 집중한 반면, 머스크는 '17년 12월 이후 선박 중심의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종합물류기업으로 탈바꿈하는 행보를 보였고, 이러한 두 선사의 사업 전략 차이가 해체의 배경으로 분석됨
- 특히 머스크는 '21년에 2년 동안 물류 서비스 분야에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후, 해운사 대신 세계 각지의 물류 기업들을 인수하였고, 지난해 머스크에어카고를 설립하여 인천과 미국 그린빌을 오가는 부정기 화물기 노선을 시작하고 포워드인 마틴 벤처를 인수하여 프로젝트 물류 시장에도 진출하는 등의 행보를 보임

» 한편, '20년 12월 기준 2M의 시장 점유율은 34.5% 수준으로, 해운 전문가들은 2M 해체가 2M 결성 때처럼 해운업계의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얼라이언스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 현재 다른 두 얼라이언스의 계약기간은 오션 '27년, 디얼라이언스 '30년임
- '20년 4월 디얼라이언스에 가입한 HMM의 경우 4+6년 방식으로 계약해 '24년 4월 이전 재계약을 하는 등 선사별 여러 변수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임

28) Maritime Executive(2023.02.15.),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port-and-trucker-driver-strikes-paralyzes-finland-s-foreign-trade>(2023.02.16.검색)

29) 코리아워킹가제트(2022.01.27.),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Num=137006(2023.02.02.검색)

30) 워킹뉴스넷(2022.02.08.), <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52087>(2023.02.22.검색)

5) 오세아니아

① 호주 멜버른항, 복합운송(intermodal) 터미널 건설 계획³¹⁾

- » 멜버른항은 4억 달러 규모의 Port Rail Shuttle 프로젝트를 통해 멜버른항~소머튼~알토나~단데농 사우스를 연결하는 복합 운송 터미널을 개발할 계획임
- 멜버른항은 온도크(on-dock) 레일 인프라를 구축하여 복합운송 허브와 멜버른항을 오가는 셔틀 열차를 수용할 계획임
- 멜버른항은 복합운송 터미널 개발로 트럭 이동량을 크게 줄여 항만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연방 및 주정부는 Port Rail Shuttle 프로젝트가 '50년까지 멜버른의 수출입 컨테이너 30%를 철도로 운송할 것을 예상함

31) Daily cargo news(2023.01.27.), <https://www.thedcn.com.au/news/containers-and-container-shipping/construction-to-begin-on-melbourne-intermodal/> (2023.02.10. 검색)

6) 아프리카

① 나이지리아 라고스, 레키항 1월 23일 개장³²⁾

- » 레키항은 나이지리아 최초의 현대식 심해 항구로 수심 16.5m, 방파제 1.9km, 안벽 연장 1.2km에 연간 25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13대의 안벽크레인 설치, 15,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접안이 가능함
- 추후 컨테이너부두 1선석, 건화물부두 1선석, 액체부두 3선석이 추가될 예정, 액체부두의 접안능력은 160,000DWT, 액체 수송을 위한 운송 파이프를 연결할 예정임
- 현재는 50헥타르의 면적에 2개의 컨테이너 선석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20만 TEU를 처리할 수 있음

32) Lekki port(2023.01.24.), <https://lekkiport.com/lekki-port-and-cma-cgm-group-to-facilitate-trade-volume-growth-increase-gdp/> (2023.02.17.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① '22년 11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대비 1.6% 감소³³⁾

» '22년 11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0.9%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1.6% 하락한 106.6 포인트 기록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한 대외 정세로 지난해 초부터 약세를 나타냈으며 5월 반등에 성공한 뒤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 그러나 9월 태풍 힌남노 및 무이파의 영향과 항만 근로자 파업 등으로 인해 9월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중국 및 아시아 지역의 항만들은 전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였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대부분 감소세를 기록함

- 중국은 111.6p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0% 증가하여 유일하게 전월과 전년 대비 모두 증가세를 기록함
- 아시아 지역은 105.1p를 기록하여 전월 대비 2.0% 증가, 전년 대비 2.5% 감소함
- 그 외 지역에서는 전월 및 전년 대비 대부분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북미지역의 경우 101.7p를 기록하여 전월 대비 8.2%, 전년 대비 8.4% 큰 폭으로 감소함
- 이는 미 서안 오클랜드항의 항만 노동자 파업 문제 및 서버너항의 지속된 정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음

33) Drewry, <https://www.drewry.co.uk/maritime-research/maritime-research-related-content/port-throughput-indices>(2023.02.20. 검색)

(단위: %)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지역	2021년	2022년		전월대비	전년대비
	11월	10월	11월		
Global	108.3	105.7	106.6	0.9	-1.6
Greater China	106.3	107.3	111.6	4.0	5.0
Asia(excl. China)	107.8	103.0	105.1	2.0	-2.5
Middle East&South Asia	108.0	104.5	106.4	1.8	-1.5
Eroupe	108.4	99.4	97.9	-1.5	-9.7
North America	111.0	110.8	101.7	-8.2	-8.4
Latine America	119.3	123.3	117.5	-4.7	-1.5
Africa	109.0	88.9	101.1	13.7	-7.2
Oceania	111.2	110.7	108.5	-2.0	-2.4

주: 2019년 1월=100

자료: Drewry(<https://www.drewry.co.uk/maritime-research/maritime-research-related-content/port-throughput-indices>)

전 세계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처리지수



자료 : Drewry(<https://www.drewry.co.uk/maritime-research/maritime-research-related-content/port-throughput-indices>)

② 컨테이너 무역 둔화로 공 컨테이너 적체 발생³⁴⁾

- » 경기 둔화에 따른 무역량 감소로 전 세계 주요 컨테이너 항만에 공 컨테이너가 쌓이고 있음

 - Container Xchange에 따르면 2월 5일 한 주 동안 컨테이너 가용성 지수(CAx)는 0.64로 11주 연속 0.6 이상을 기록함
 - 해당 지수가 0.5보다 높으면 항만에 반입되는 컨테이너가 반출되는 컨테이너보다 많다는 의미임
- » 주요 수출입 항만인 상하이항, 칭다오항, LA항 등에서 컨테이너 가용성 지수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상하이항과 칭다오항 등 수출 거점항만에서 40ft 컨테이너의 CAx 지수는 0.6~0.7 사이를 기록하고 있고 앤티워프항과 LA항 등 주요 수입항만에서는 0.8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22년 4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음
- » 전 세계적으로 유휴 컨테이너가 전체 용량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유휴 선박도 공 컨테이너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임
- » 또한, 컨테이너 공급 과잉도 공 컨테이너 적체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21년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의 신규 컨테이너 주문량 대비 노후화된 컨테이너 폐기가 적어지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함
- » 한편, 클락슨은 '23년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컨테이너 시장은 무역 수요 둔화, 공급 과잉, 운임 하락 등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됨

34) NIKKEI Asia(2023.02.15.), <https://asia.nikkei.com/Spotlight/Caixin/Empty-containers-pile-up-at-global-ports-as-trade-slows>(2023.02.20. 검색)

2) 양곡

① 국제곡물 협의회(IGC), 세계옥수수 수확량 전망치 하향 조정한 반면 밀 생산량 전망은 유지³⁵⁾

» 국제곡물 협의회(IGC)는 2022/23 글로벌 옥수수 생산량을 11억 5,300만 톤으로 초기 예상치보다 800만 톤 하향 전망함

-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주요 요인은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감산으로 두 국가의 2022/23 예상 옥수수 생산량은 각각 3억 5,380만 톤, 5,600만 톤으로 감소함
- 이 밖에 IGC는 농업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역의 생산량도 2021/22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IGC는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지만 2022/23년도 초기 밀생산량 예측치 7억 9,600만 톤을 유지하였음

②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1월 곡물가격지수는 147.4p로 전년 동월 대비 6.7p 상승함³⁶⁾

» 주요 곡물 중에서 쌀과 옥수수의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보리와 밀의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함

- '23년도 1월 세계 옥수수가격은 미국의 옥수수 수출 가격이 상승했으나 브라질의 옥수수 수출 생산량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0.5%) 증가함
- 호주와 러시아가 예상 대비 많은 밀 생산량을 기록하며 전 세계 밀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1월 세계 밀 가격은 3개월 연속 2.5% 하락함

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뉴스 (2023.2.23.),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7077/page/1, (2023.2.24 검색)

36) 국제연합 식량 농업기구 FAO(2023.02.03.), <https://www.fao.org/worldfoodsituation/foodpricesindex/en/>, (2023.02.28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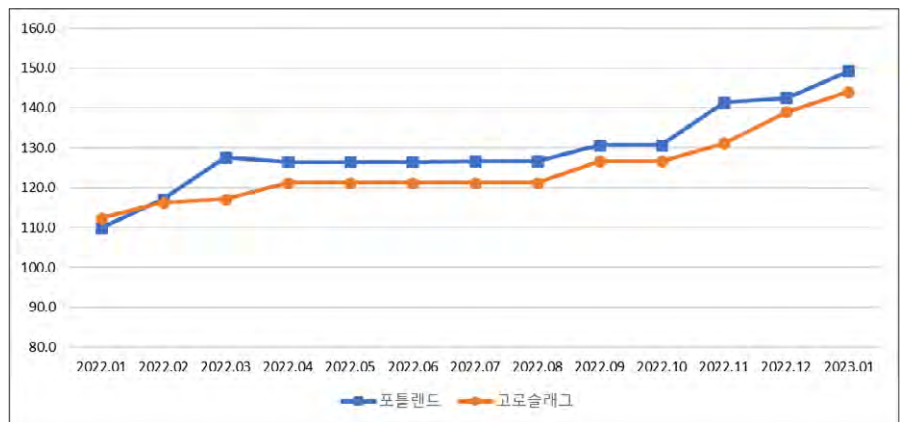
3) 시멘트

① 1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3개월 연속 증가³⁷⁾

» 포틀랜드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4.7%, 전년 동월 대비 35.8% 증가한 149.3p,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전월 대비 3.6%, 전년 동월 대비 28.1% 증가한 144.1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22년 3월 이후 보험세를 보였으나 '22년 10월이후 3개월 연속 상승 중임

(단위: 2015년 = 100기준)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10.0	117.1	127.7	126.4	126.4	126.4	126.7	126.7	130.7	130.7	141.4	142.5	149.3	4.7	35.8
고로슬래그	112.4	116.3	117.1	121.3	121.3	121.3	121.3	121.3	126.7	126.7	131.2	139.0	144.1	3.6	28.1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3.01.24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3.01.24 검색))

② 시멘트 수급 불균형 발생³⁸⁾

» 2월은 통상적인 건설 비수기지만 시멘트 제조사의 생산량 대비 주문량이 많아 시멘트 출하가 제한됨

- 시멘트 출하 제한은 주로 수도권 건설현장에 시멘트를 공급하는 내륙사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월 재고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만 톤 이상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시멘트 수급 불균형의 원인은 시멘트업계에 대한 탄소중립 및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설비 투자 및 공사로 인한 제조 설비 정지, 전년보다 따뜻했던 날씨와 지난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미뤄졌던 건설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됨
- 현재 시멘트업계의 적정재고수준이 확보되지 않아 본격적인 성수기인 3월부터는 수급 불안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38) 한국경제(2023.02.2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22377811\(2023.02.23 검색\)](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22377811(2023.02.2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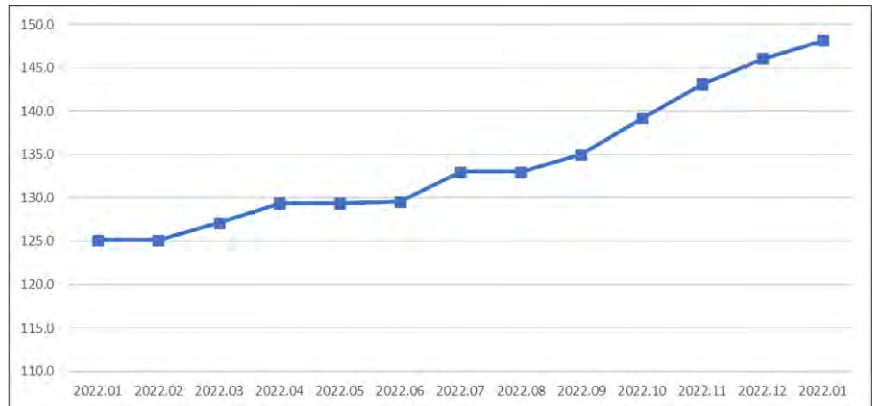
4) 모래

① 1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5개월 연속 증가

»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22년 9월부터 5개월간 꾸준히 증가하여 148.1p를 기록, 전월 대비 1.4%, 전년 동월 대비 18.4% 증가함

(단위: 2015년 = 100기준)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25.1	125.1	127.1	129.4	129.4	129.6	133.0	133.0	135.0	139.2	143.1	146.0	148.1	1.4	18.4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2\(2023.02.23.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2(2023.02.23. 검색))

② 인천환경단체, 옹진군 굴업도 바다모래채취 허가절차 중단 요구³⁹⁾

» 인천환경단체는 '21년 옹진군이 제출한 채취협의서에 대해 해사채취 허가절차 중단과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검증을 요구함

- 2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굴업·덕적해역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일반해역이용협의서에 조 건부 동의함
- '21년 옹진군이 제출한 협의서는 굴업도에서 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해상에 19.18km² 면적에서 5년간 총 2,900만 m³를 채취한다는 계획임

39) 인천뉴스(2023.02.14.),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279\(2023.02.16. 검색\)](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279(2023.02.16.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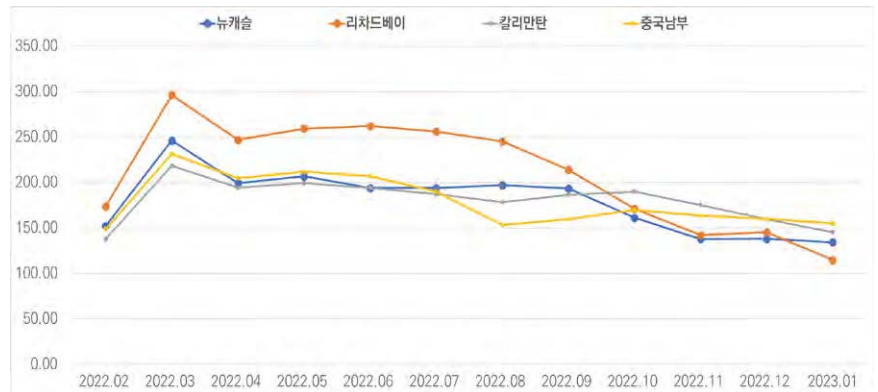
① '23년 1월 기준 유연탄 가격은 하락세를 기록⁴⁰⁾

»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기준 연료탄 1월 평균가는 톤당 134달러로 전월대비 2.8% 하락세를 기록함

- 당초 1월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중국의 호주산 석탄수입 재개 허가로 연료탄 수요확대가 예상되었으나, 유럽지역의 동절이 이상고온 현상에 따른 에너지원 수요둔화로 연료탄 가격하방압력이 발생함

40)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3.02.17),
[https://www.kores.net/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2023.02.23.검색\)](https://www.kores.net/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2023.02.23.검색))

유연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152.41	246.02	199.36	206.77	193.76	193.80	196.98	193.37	161.15	137.73	138.03	134.23	-2.8	0.8	
리처드베이	173.64	296.10	246.95	259.10	262.05	255.95	245.11	213.87	171.01	142.18	145.21	114.90	-20.9	0.6	
칼리만탄	138.07	218.38	194.29	199.17	194.01	187.04	178.46	186.53	190.12	175.34	159.56	145.53	-8.8	0.9	
중국남부	148.99	231.40	204.81	211.62	206.92	190.12	153.18	159.61	169.78	163.44	159.86	154.97	-3.1	0.8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② 삼척시, 삼척블루파워의 육상운송계획 철회 요청⁴¹⁾

- » 강원 삼척시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가 발전연료인 유연탄을 동해항에서 육상으로 운송하려는 계획에 대해 삼척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삼척시 등에 따르면, 삼척화력에 소요되는 연료는 전량 해상운송될 계획이었으나, '20년 10월부터 '21년 6월까지 약 8개월 간 항만공사 중지 등의 영향으로 석탄 하역부두를 완공하지 못함
- 이에 삼척블루파워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시운전에 필요한 연료를 동해항에서 국도7호선을 통해 육상으로 운송하는 계획을 수립함
- 해당 계획은 '22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3월부터 맹방항이 준공되는 '24년 4월까지 25톤 덤프 34대가 6.5회 왕복으로 일일 220대, 약 4,400톤을 동해항에서 삼척화력발전소로 운반할 예정임
- 삼척시는 육상운송경로가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인 점,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등 주민들의 기본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육상운송계획승인의 철회를 요청함
- 동해항이 위치한 동해시도 삼척시와 마찬가지로 인근지역의 환경오염과 도로파손 등에 대한 우려로 반대입장을 표명함

③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공사 '재정사업' 본격 추진⁴²⁾

-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3월부터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에 나설 계획으로, 협의 완료 시 올해 예산에 반영된 설계비 5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임
- 현재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동해신항 '기타광석 및 잡화부두'(2, 3번 선석)에 대해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며 KDI에 재정사업 수요예측 재조사를 의뢰할 당시 석탄부두도 계획 대비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온
- 당초 동해신항 석탄부두는 동해국가자원터미널(주)이 '18년 9월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석탄 물동량 감소 예상 및 사업비 조달 어려움으로 '22년 8월 사업을 포기함
-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공사는 동해항의 체선률을 완화하고, 국가기반산업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부족한 항만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될 예정임
- 총 사업비 2,333억 원을 들여 10만 톤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고 연간 54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부두시설 건설공사로 약 36개월 가량이 소요될 예정임
- 해수부는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면 '24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5년 착공을 목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41) 노컷뉴스(2023.02.08.), [https://www.nocutnews.co.kr/news/5891811\(2023.02.09.검색\)](https://www.nocutnews.co.kr/news/5891811(2023.02.09.검색))

42) 강원일보(2023.02.16.), [http://www.kwnews.co.kr/page/view/2023021511362922727\(2023.02.22검색\)](http://www.kwnews.co.kr/page/view/2023021511362922727(2023.02.22검색))

6) 철광석

①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철광석 가격 120달러대 유지⁴³⁾

»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2월 셋째 주 기준 톤당 123.6달러로 2주 연속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1월 이후 12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음

- 2월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부양책 등으로 철강 수요 증가 기대감에 따라 철광석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여 톤 당 120달러 박스권을 유지 중임
- 특히 중국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에 따라 건설용 철강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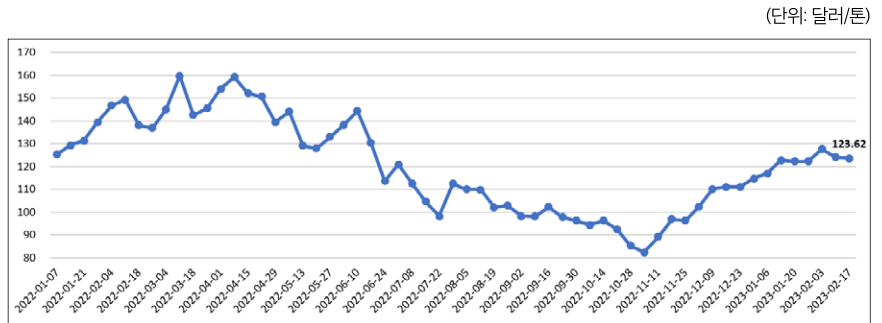
» 철강 수요 증가 기대감에 따른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철강업계도 수익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경영 전략을 내세우고 있음

- 철강 시황 개선으로 수익성 강화 등을 위해 철강 제품에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고자 하고 있음

» 다만 철광석 가격 상승은 중국의 철강 시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국내 철강업계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원가 상승분을 제품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43) News1(2023.02.14.), <https://www.news1.kr/articles/74951890>(2023.02.20. 검색)

철광석 가격 추이



자료 :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3.02.20. 검색)



7) 기타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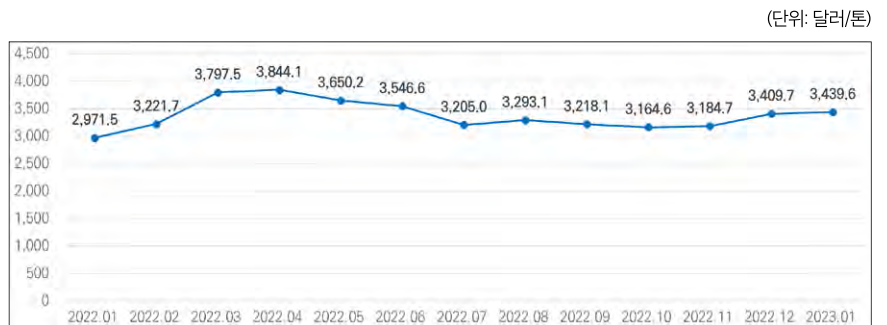
① 1월 기준 광물종합지수는 3,439.64로 전월 대비 0.9% 상승⁴⁴⁾

» '22년 4월 광물종합지수는 3,844.1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12월 다시 상승 추이를 보임

- 중국의 코로나 봉쇄해제로 수요확대가 예상되며, 미연준의 금리인상 속도둔화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 및 광종별 재고량 감소 등 타이트한 수급상황으로 광물자원 가격 상승세를 견인함

44)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3.02.17), [https://www.kores.net/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2023.02.23.검색\)](https://www.kores.net/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2023.02.23.검색))

광물종합지수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3,221.7	3,797.5	3,844.1	3,650.2	3,546.6	3,205.0	3,293.1	3,218.1	3,164.6	3,184.7	3,409.7	3,439.6	0.9	26.8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② 리튬 배터리 수요, 장래 전기선박 수요로 확대 전망⁴⁵⁾

» 장래 리튬 배터리는 전기차 대중화와 더불어 전기선박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전기차배터리응용지회가 '23년도에 발표한 '세계 리튬배터리 산업 공급 및 수요 백서'에 따르면, 향후 전기차와 함께 전기선박이 리튬 배터리 수요를 쌍끌이 할 것이라고 전망함
- 현재 리튬 배터리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은 전기차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25년 2,36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향후에는 전기선박의 기술 향상으로 전기 선박용 리튬 배터리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실제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발표한 '전기 선박 시장 규모 및 업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7년 세계 전기선박 시장 규모는 108억 2,000만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다

45) 데일리카(2023.01.24.), [http://www.dailycar.co.kr/content/news.html?type=view&autoid=47104\(2023.02.02.검색\)](http://www.dailycar.co.kr/content/news.html?type=view&autoid=47104(2023.02.02.검색))

③ 현대엔지니어링, 호주 희토류 프로젝트 1단계 작업 착수⁴⁶⁾

- » 현대엔지니어링은 호주 희토류 광물 정제 플랜트 사업을 본격화하며, 향후 수주 확대가 기대됨
- 현대엔지니어링은 호주의 희토류 생산업체인 ASM(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과 희토류 광물 정제 플랜트에 대한 기본설계를 수립하기 위한 1단계 작업에 돌입함
- 기본설계는 '23년도 중반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엔지니어링 설계를 수립하고 최종 개발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 이 사업은 호주 시드니 서북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더보지역에서 희토류-지르코늄-네오디뮴-하프늄 등의 광물을 분말-금속의 형태로 생산하는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임
- 희토류는 전기자동차-배터리-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각종 첨단 제조업의 핵심 원료이며 코발트-구리-리튬-니켈 등 광물과 더불어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현대엔지니어링은 호주의 희토류 정제사업 분야의 수주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6) The GURU(2023.02.08.),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49389>(2023.02.16.검색)

8) 목재

① '22년 목재 수입물량 전년대비 0.5% 감소⁴⁷⁾

- » 작년 하반기부터 극심한 건설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목재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원목, 제재목, 합판, MDF 등 건설관련 주요 목재품목의 수입량이 감소함
- 주요 목재제품의 단가가 기록적으로 높아졌다 점진적으로 내려 온 여파로 수입량은 감소한 반면 수입금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함
- 목재류 전체 수입금액은 58억 2,918만 달러이며, 품목별 수입금액 비중은 펄프, 펠릿, 합판, 제재목, 원목, PB & OSB 순임
- 수입물량이 증가한 품목은 단판 11.8%, 목제를 9.2%, 건축목공 193.1%, 목탄 22.7%, 목재칩(펠릿) 16.5%, 펄프 3.9%로 나타남
- 단판의 수입량이 증가한 이유는 국내 합판제조업체의 단판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건축목공은 HSK코드 재분류로 집성재와 구조용 목재가 편입된 영향으로 분석됨
- 한편 목재칩(펠릿)의 수입량은 '21년 442만 톤에 비해 16.5%가 증가한 515만 톤에 달했으며, 국가 바이오에너지 생산량 비율 확대 정책으로 목재칩(펠릿)의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7) 한국목재신문(2023.02.15.), <https://www.wood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97>(2023.02.2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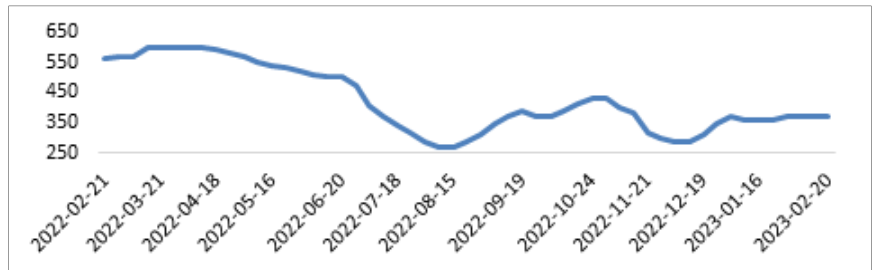


9) 고철

① 2월 넷째 주, 국내 고철 가격 보합세 기록⁴⁸⁾

- » 국내 고철 가격(경량A, B 평균, 제강용 대상 아드 도착도 기준)은 2월 넷째 주까지 7주간 361~371원/kg 가격을 유지함
- 튀르키예 지진 여파에도 국내 고철 가격은 전 지역·품목 큰 단가 변동 없이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음
- 한편, 고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철광석 가격은 톤당 127달러에서 강보합을 기록했으며, 원료탄은 톤당 400달러로 전주 대비 30달러 오르며 상승세를 기록함

고철 가격 추이



자료 : 철강금속신문 가격DB(2023.02.20.), <https://snmtrend.snmnews.com/>(2023.02.22. 검색)

② 튀르키예, 고철 수입 활동 재개 및 가격 상승 전환⁴⁹⁾⁵⁰⁾

- » 튀르키예, 고철 수입 활동 재개
- 대형 화재로 봉쇄됐던 남부 이스켄데룬 항구가 정상화되면서 인근 대기 중이던 고철 선박도 하역을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강사들도 고철 수입 활동을 재개함
- 주요 제강사들이 입지한 지역 중 이즈미르와 마르마라 지역은 튀르키예 서부권으로 이번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남부 이스켄데룬 지역 제강사들의 생산 재개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존재함

48) 철강금속신문(2023.02.22.), <http://pdf.snmnews.com/PDF/REAL/2023/02/22/PS010222010100301B0001.pdf>(2023.02.22. 검색)

49) 철강금속신문(2023.02.22.), <http://pdf.snmnews.com/PDF/REAL/2023/02/22/PS010222010100401B0001.pdf>(2023.02.22. 검색)

50) 철강금속신문(2023.02.22.), <http://pdf.snmnews.com/PDF/REAL/2023/02/22/PS010222010100101A0001.pdf>(2023.02.22. 검색)

» 튀르키예, 고철 가격 상승세 전환

- 대지진 여파로 2월 셋째 주 튀르키예 미국산 고철 수입 가격은 전주 대비 5달러 하락했으나, 주중 9달러가 오르면서 상승세로 전환함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지역 재건을 위해 최소 3개월 내 400만 톤의 철근 수요가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고철 가격이 함께 상승한 것으로 보임

③ 포스코, '26년 가동 목표로 광양에 전기로 공장 신설⁵¹⁾

- » 포스코는 2월 20일 약 6천억 원을 투자해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만 톤 규모의 전기로를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함
- 전기로는 '24년 1월 착공해 '26년에 가동될 예정이며, 이는 광양제철소에 첫 번째로 지어지는 전기로로, 광양제철소에는 현재 고로만 5기가 운영되고 있음
-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상용화되어 기존의 고로 공정을 대체하기까지의 전환 단계 동안 전기로를 도입해 탄소 감축 노력을 이어갈 예정임
- 포스코는 전기로에서 생산한 용강을 직접 활용하거나 고로에서 생산한 용선과 혼합하는 합탕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발생량을 저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51) 철강금속신문(2023.02.22.), <http://pdf.snmnews.com/PDF/REAL/2023/02/20/PS010220010100401B0001.pdf>(2023.02.22. 검색)

10) 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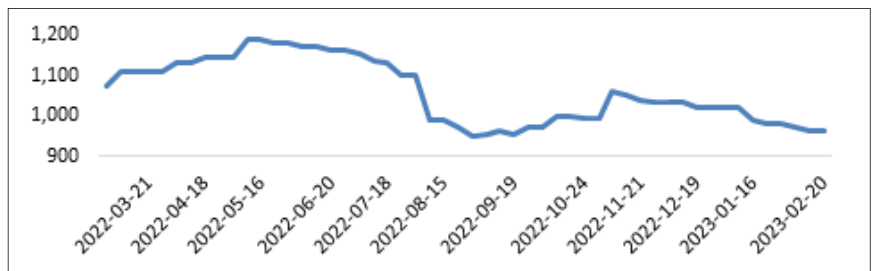
① 국내 철근 유통가격, 지속적인 감소 추세 기록⁵²⁾

- »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보인 철근 가격은 계절적 비수기를 지나 성수기로 들어서는 길목에서도 여전히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다만 원달러 환율 상승과 수입 원가 상승 등으로 1월 가격 인상을 진행했던 수입 철근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가 약하게 나타남
- 한편, 일본 고철 가격의 상승에 따른 국내 고철 가격의 상승과 전기 요금 등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생산원가 압박에도 철근 가격 약세가 지속되어, 제강사와 유통업체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52) 철강금속신문(2023.01.25.), <http://pdf.snmnews.com/PDF/REAL/2023/01/25/PS010125010100101A0001.pdf>(2023.01.25. 검색)

(단위: 천 원/톤)

국내 철근 가격 추이



자료 : 철강금속신문 가격DB(2023.02.20.), <https://snmtrend.snmnews.com/>(2023.02.22. 검색)

② 와이케이스틸, 당진공장 이전 설비 확대 계획 발표⁵³⁾

- » 와이케이스틸은 '21년 말 계획했던 단순 공장 이전 대신, 미니밀 도입과 함께 신규 설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선택함
- 독일 제조설비 전문업체 SMS 그룹은 최근 와이케이스틸과의 계약 사실을 알리며, '21년 말 계획했던 단순 공장 이전 대신 115톤 미니밀을 공급하고, 용융, 주조, 압연 등 모든 부문을 총괄하는 공장 설립을 도울 것으로 발표함
- 새로 들어서는 당진 공장은 '25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새로 추가되는 미니밀은 시간당 140톤의 빌릿 생산능력을 제공, 연간 약 100만 톤 규모의 철근을 생산할 계획임

④ 철근 입찰 담합 11개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⁵⁴⁾

- »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제강사와 압연업체 11개사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시행됐으며, 조달청은 손해배상 소송과 입찰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12~'18년 철근 연간 단가계약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11개사가 사전에 낙찰 물량과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조달청의 이번 조치로 2개사는 24개월, 9개사는 6개월간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됨
- 조달청은 이번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380여 개 수요 기관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예정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 기관은 총 2조 3천억 원의 납품 요구 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은 소송을 통해 확정됨
- 한편, 조달청은 입찰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임

53) 철강금속신문(2023.02.13.),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468>(2023.02.16. 검색)

54) 철강금속신문(2023.01.30.),
<http://pdf.snmnews.com/PDF/REAL/2023/01/30/PS01013001010040180002.pdf>(2023.02.02. 검색)



11) 자동차

① 1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1만 6,565대로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⁵⁵⁾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월 내수는 명절연휴로 판매일수가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대비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며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함

- 국내 시장은 6개월 연속 증가 기록한 가운데, 국산차는 6.9% 증가한 반면 수입차는 7% 감소함
- 전기차 판매는 보조금 소진으로 인해 저조한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국산/수입차 신규 모델의 증가로 44% 증가하여 전체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8.9% 증가한 2만 2,662대임

≫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수출 증가가 지속되며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한 20만 825대를 기록함

- 수출액은 친환경차·SUV 등 고단가차량 수출이 지속되며 7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역대 1월 최고실적인 49.8억 달러를 기록함
- 전기차는 61.6% 증가한 12.3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자동차 부품은 중국향 수출 감소로 2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16.2% 감소한 17.3억 달러를 기록함

≫ 생산은 설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일부 라인공사가 있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며 전년 동월 대비 13.2% 증가한 30만 6,738대를 생산함

55)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 (2023.01.20.),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72&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 (2023.01.25. 검색)

(단위 : 대, 백만 \$, %)

'23. 1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률	
	연간	1월	12월	1월	전월비	전년 동월비
내수	1,684,113	111,294	160,985	116,565	-27.6	4.7
(국산차)	1,384,722	93,963	131,066	100,440	-23.4	6.9
(수입차)	299,391	17,331	29,919	16,125	-46.1	-7.0
수출	2,300,333	180,373	217,721	200,825	-7.8	11.3
(완성차 수출액)	54,096	4,089	5,427	4,984	-8.2	21.9
(부품 수출액)	23,318	2,060	1,987	1,726	-13.1	-16.2
생산	3,756,491	271,054	352,831	306,738	-13.1	13.2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3.01.14.),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76&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 (2023.02.21. 검색)



12) 잡화

① '23년 1월 ISM(미국 공급자관리협회)의 PMI지수(구매관리자지수, 당초 시장 전망치(48.0)보다 낮은 47.4 기록⁵⁶⁾

- ▶ 가장 중요한 신규주문은 42.5로 전월 대비 감소(-2.6p)하였으며 생산도 전월 대비 0.6p 소폭 감소한 48을 기록함
- '23년도 1월 미국의 신규주문과 생산지수는 감소한 반면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5.1p 증가한 44.5를 기록함
- 제조업 고용지수는 50.8에서 50.6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ISM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 기업들은 '23년도 하반기 경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고용 직원들의 수를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을 예상함
- ISM의 PMI 지수는 제조업체 구매담당자가 느끼는 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 상태, 물가 등을 종합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과해 수치화함
- 이후 경제를 파악하는 선행지표로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미만은 경기의 축소를 의미함

56) Trading Economics (2023.02.03.),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3.02.24. 검색)

13) 유류

① 1월 국제유가, Dubai, Oman, Brent, WTI 모두 전월 대비 상승한 반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함

- ▶ 월별 유가는 '22년 6월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왔으나 '23년 1월에는 전월 대비 3.4% 반등함
- 급등했던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나 '23년 1월 반등함
- 다만, 러·우 전쟁에 따른 제재와 중국의 리오프닝, OPEC+의 감산 유지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시장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

(단위: US\$/bbl,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83.5	92.4	110.9	102.8	108.2	113.3	103.1	96.6	91.0	91.2	86.3	77.2	80.4	4.1	-3.7
Oman	83.6	92.8	111.1	102.8	108.2	113.3	103.3	97.0	91.0	91.2	86.3	77.4	80.6	4.1	-3.6
Brent	85.6	94.1	112.5	105.9	112.0	117.5	105.1	97.7	90.6	93.6	90.9	81.3	83.9	3.2	-1.9
WTI	83.0	91.6	108.3	101.6	109.3	114.3	99.4	91.5	83.8	87.0	84.4	76.5	78.2	2.1	-5.8
평균	83.9	92.7	110.7	103.3	109.4	114.6	102.7	95.7	89.1	90.7	86.9	78.1	80.8	3.4	-3.7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2.23. 검색)

② 항공유, 올해 석유 수요 증가 견인 전망⁵⁷⁾

» 중국 리오프닝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한되었던 항공 수요가 회복되면서 항공유가 '23년 석유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23년 항공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IEA는 '23년 세계 항공유 수요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 14% 낮은 691만 b/d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세계 항공유 수요가 코로나 이전 수준인 약 800만 b/d 회복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 EU의 러시아산 석유제품 금수 조치(2월 5일 시행), 프랑스 정유사 파업 등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럽 경유뿐만 아니라 항공유·등유 정제마진도 최근 강세를 이어가고 있음

③ 유럽의 러시아 석유 금수조치, 미 동부 여름철 휘발유 공급 부족 우려⁵⁸⁾

» 블룸버그는 미국 뉴욕과 동부연안 지역이 금년 여름에 휘발유 부족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보도함

- 미국의 휘발유 비축량은 낮은 수준이며, 정제시설의 동절기 보수로 추가적인 재고 압박을 받을 수 있음
-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 금지로 유럽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유럽 내 휘발유 생산이 제한받을 수 있고 통상 하절기에 이루어지는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제품 공급을 제한할 수 있음
- 지난 여름 발생했던 휘발유 가격 상승과 유사하게 공급 충격에 따른 가격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도함
- 미국은 휘발유 순수출국이나 대부분의 여유 물량은 걸프연안에 위치하고 있어 동부연안으로의 수송은 송유관 부족과 해상 수송 비용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임

57)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1.30),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2.02. 검색)

58)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1.31),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2.02. 검색)

④ 1조 달러 돌파한 청정에너지 투자, 석유·가스 수준 기록⁵⁹⁾

- » '22년 전 세계 청정에너지 투자액이 전년 대비 31% 증가한 1조 1,0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함
- '22년 화석연료 탐사, 개발, 정유, 발전 등의 투자액은 약 1조 1,000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청정에너지 분야에는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인프라, 수소, 원자력, 자원순환, CCS 등이 포함됨
- '22년 청정에너지 투자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부문이 주를 이뤘는데, 전 세계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는 350GW 이상 신규 설치되었고 전기차는 1,000만 대 이상 팔림
- 중국은 세계 청정에너지 투자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며, 투자액의 절반 정도인 546억 달러, 미국이 두 번째로 큰 141억 달러를 투자함
- 청정에너지 투자금액은 향후 1조 달러를 넘어서 '50년 탄소중립 달성 차원에서 지금 수준의 3배 이상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⑤ 유럽연합(EU), 러시아산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시행⁶⁰⁾

- » EU와 G7은 2월 4일 러시아 해상 수입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에 합의함
- EU는 경유, 등유, 휘발유와 같은 원유가격 대비 프리미엄이 있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100/B을 상한 가격으로 적용, 중유와 나프타와 같은 석유제품에는 \$45/B 상한 가격을 적용함
- 가격상한제를 준수하지 않는 해운사는 EU·G7호주의 보험 및 금융사 서비스 이용이 전면 금지됨
- EU의 제재로 석유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으나, 서방 주재 언론은 당장의 공급 차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의 대러 석유 제재가 앞으로 에너지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S&P Global은 이번 규제가 타이트한 공급보다는 글로벌 공급망 개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함

⑥ 러시아, 석유생산량 및 수익 대폭 감소 및 공급차질 전망⁶¹⁾⁶²⁾

- » '22년 러시아는 서방 제재와 유전 서비스 회사들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석유 생산량이 증가함
- BP는 금년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운영자산의 높은 감소율과 외국 기술 사용 제한 때문에 러시아의 생산량이 '35년까지 25~42% 감소하는 등 장기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함
- 반면 세계 산유량에서 OPEC 비중이 현재 약 30%에서 '50년에는 45~65%로 증가하고, 더욱 지배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59)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2.01~),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2.02.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2.02. 검색))

60)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2.08),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2.09.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2.09. 검색))

61)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2.09),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2.16.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2.16. 검색))

62)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2.13),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2.16.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2.16. 검색))

- 러시아의 주력 제품인 우랄 원유 수출이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와 가격상한제 제재로 인해 '22년 11월 600만 톤에서 12월 500만 톤으로 감소함
- 러시아가 우랄 원유 수출을 유럽으로부터 중국과 인도와 같은 다른 시장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지 못했고, 적합한 선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올해 러시아 경제는 상당히 위축될 것이며, 유럽에 대한 석유가스 판매가 급감하면서 현금 흐름이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2월 10일 러시아 부총리는 3월 러시아 원유 생산량을 50만 b/d(러시아 1월 원유 생산량의 5%) 줄이겠다고 발표함

- 금번 감산 조치는 서방의 대러제재(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금수조치 및 가격상한제)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조치로 중국 수요 증가와 러시아 생산 감소로 향후 석유 시장이 더욱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앞으로 작·간접적으로 가격상한제를 준수하는 곳에는 석유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힘

⑦ 미국, 전략비축유 2,600만 배럴 방출 계획⁶³⁾

»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의 '15년 법안에 따라 전략비축 원유(SPR) 2,600만 배럴을 판매할 계획임

- SPR 판매 입찰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동 물량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인도 예정임
- 로이터는 금번 매각으로 미국의 SPR이 현재 3.72억 배럴에서 3.45억 배럴로 감소해 '83년 이후 저점을 기록할 것이라 보도함
-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팬데믹 이후 석유수요 증가에 따른 유가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8억 배럴의 SPR을 시장에 공급한 바 있음

⑧ IEA,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석유 수요 전망 상향⁶⁴⁾

» IEA는 중국 리오프닝과 항공 수요 회복에 힘입어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을 전월 대비 10만 b/d 상향 조정한 200만 b/d로 전망함

- IEA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따른 EU 경제 전망 개선, 미국 달러화 가치 약세 등 낙관적인 시장 상황으로 석유 시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
- 중국 석유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하반기에는 석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 부족 상황으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했으며,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의 절반이 중국(90만b/d)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63)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2.14),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2.16.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2.16. 검색))

64)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2.16),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2.16.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2.16. 검색))

- 다만, IEA는 비OPEC+ 생산 증가에 힘입어 2023년 석유 공급 증가분도 전월 대비 20만 b/d 상향 조정한 120만 b/d로 전망함

9 OPEC+, 강한 수요 증가가 확인될 때까지 현행 감산 유지⁶⁵⁾

- » OPEC+ 사무총장은 원유의 증산을 위해서는 수요 증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현행 감산을 유지할 전망이다
- 중국 리오프닝 이후 중국 수요 회복, 세계 항공유 수요 증가를 주시하고 있으며 실제 수요 증가가 나타날 때까지 증산은 신중하게 고려할 방침임
- 사우디 에너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OPEC+는 정치적 이유가 아닌 시장 펀더멘탈에 기반하여 생산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OPEC+ 감산은 석유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었고 필요한 경우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발언함

10 러시아 1월 석유·가스 수익,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⁶⁶⁾

- » 올해 1월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익은 원유 수출 제재에 따른 러시아산 원유가격 폭락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 급감함
- 러시아는 브렌트 대비 우랄 원유 할인 확대에 따른 러시아의 수익 감소를 제한하기 위해 우랄 대신 브렌트 기준으로 석유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핀란드 에너지 및 청정공기연구센터(CREA)는 EU의 석유 금수조치와 가격상한제에 따른 러시아의 석유 출하량과 가격 하락으로 인해 러시아가 하루에 1.74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CREA에 따르면 2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러시아 제재 추가 조치로 인한 러시아의 수익 손실은 하루 3.04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1 장기적인 인도 천연가스 수요, 500% 증가 전망⁶⁷⁾

- » 인도는 급속한 개발과 성장으로 가스 수요가 500% 증가하고, 세계 석유 수요에서 인도의 비중이 5%에서 1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인도와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와 가스 수입국이며, 인도는 현재 에너지 수요의 약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OPEC은 세계 석유 수요가 '21년 9,700만 b/d에서 '45년 1억 1,000만 b/d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인도와 중국이 수요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함

65)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2.21),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2.23.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2.23. 검색))

66)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2.06),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2.10.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2.10. 검색))

67)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2.06),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2.10.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2.10. 검색))

12 독일의 주간 천연가스 수요, 3주 연속 절감 목표 미달⁶⁸⁾

» 독일은 3주 연속으로 천연가스 수요 절감목표에 미달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수급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 독일은 작년 유럽연합 회원국간에 합의된 천연가스 수요 절감목표인 15%보다 엄격한 기준인 20%를 목표로 설정함
- 1월 30일에서 2월 5일 기준 독일의 천연가스 수요는 '18~'21년 같은 기간 평균 대비 12% 감소에 그치며 3주 연속 절감 목표에 미달함
- 부문별로 구분해보면 산업 및 발전용은 18%, 주거상업용(난방용)은 10%를 절감함
- 다만, 절감목표 미달에도 불구하고 다음 동절기까지 수급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13 민간LNG산업협회 '23년도 정기총회 개최⁶⁹⁾

» 사단법인 민간LNG산업협회는 '23년 정기총회를 2월 22일 개최했으며, 공동회장사인 SK E&S, GS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회원사가 모두 참석함

- 정기총회에서 '23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내 천연가스 산업 발전과 LNG 직수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제안, 연구사업 진행 등 협회 활동의 활발한 추진을 논의함
- '23년 협회의 중점사업으로 '천연가스 산업 선진화', 'LNG직수입 활성화', '천연가스 산업 기술 고도화'를 선정함
- 그 외에도 중점사업 달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 정책 제안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회원사 간 협력 강화 및 천연가스 분야 전문가 교류 확대, 가스위원회 설치, 천연가스 배관망 중립성 확보를 바탕으로 가스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도록 활동할 계획임

68)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2.10),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2.16. 검색)

69) 민간LNG산업협회 보도자료(2023.02.22), http://lngkorea.or.kr/bbs/board.php?bo_table=press_release&wr_id=32(2023.02.23. 검색)



14) 화학공업생산품

① 나프타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감소, 에틸렌은 유지

- » 유가 상승으로 동반 상승했던 나프타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6.5%)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4%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에틸렌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23년 1월, 유가의 반등에도 나프타의 생산자물가지수는 하락했으며 나프타 크래킹을 통해 생산되는 에틸렌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단가 유지를 위해 가동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물동량은 큰 변화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65.3	184.3	215.2	195.7	201.3	184.1	180.2	160.8	161.1	170.4	169.0	169.0	158.0	-6.5	-4.4
에틸렌	109.2	114.8	134.8	148.6	140.6	129.2	115.0	110.5	112.0	112.3	107.8	106.1	106.1	0.0	-2.8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3.02.23.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3.02.23. 검색))

② 에쓰오일, 9조 투입 울산 '샤힌 프로젝트' 3월 6일 기공식⁷⁰⁾

- » 에쓰오일은 오는 3월 9조원 규모 '샤힌 프로젝트'의 기공식을 개최하고 종합 석유화학 기업으로 도약에 속도를 낼 예정임
- 샤힌프로젝트는 '18년 완공된 40억 달러 규모의 1단계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후속 프로젝트로 에쓰오일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26년까지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짓는 사업임
- 에쓰오일은 올해 1월부터 샤힌 프로젝트 부지를 평탄화하고 정리하는 부지정지 작업을 시작했으며 용지 정리작업이 마무리되는 11월부터 플랜트 공사에 착수할 예정임
- 에쓰오일은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울산 온산공장에 세계 최대 규모 스팀 크래커, 원유에서 직접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TC2C 시설, 플라스틱을 비롯한 합성수지 원료로 쓰이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폴리머 시설 등을 신규로 건설할 예정임

70) 한국석유화학협회(2023.01.25.),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575\(2023.01.27. 검색\)](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575(2023.01.27. 검색))

-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연간 최대 320만 톤의 석유화학제품 생산이 가능해지며, 에쓰오일의 석유화학 비중은 생산물량 기준 현재 12%에서 25%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정유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석유화학의 비중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 사우디는 '16년부터 첨단 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비전 2030'을 수립하고 탈석유화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③ 롯데이네오스화학, '25년 가동 목표로 초산비닐 공장 25만 톤 증설 예정⁷¹⁾

- » 국내 유일의 초산·초산비닐(VAM) 생산 기업인 롯데이네오스화학은 국내외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5년 말 공장 가동을 목표로 초산비닐 생산 설비를 증설할 예정임
- 롯데이네오스화학은 '20년 초산비닐 2공장 증설 완료에 이어 3년 만에 3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울산공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 롯데건설과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장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함
- 초산비닐은 식품용 포장재, 무독성 접착제 및 도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 태양 전지 모듈 하우징과 디스플레이용 편광 필름 등 친환경 첨단 소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산비닐에 대한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롯데이네오스화학은 증설을 통해 현재 45만 톤인 초산비닐 생산 능력을 70만 톤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④ 석유화학업계 중국 수출 감소분만큼 미국 및 일본 수출 증가⁷²⁾

- » 석유화학업계가 지난해 중국 수출 하락액 약 12억 달러를 미국과 일본에서 만회함
-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에서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와 같은 고부가가치(스페셜티) 시장 확대에 주력하는 등 사업을 강화함
- 반면, 일본에서는 중국·중동과 비교해 저렴한 해상운임 장점을 살려 PP(Polypropylene)·PE(Polyethylene) 등 범용 제품 수출을 늘려 일본을 상대로 수출 증가를 이룸
- 해상 수출하는 석유화학 업종 특성상 물류비 절감은 필수인데, 국내 기업들은 중동·중국과 다른 물류비 장점을 내세워 일본 수출을 확대함
- 일본은 과거 석유화학 투자 시기를 놓치면서 한국과 중동에 주도권을 내주었으며, 이 같은 일본의 석유화학 산업구조 변화(에틸렌 생산능력은 일본 682만 톤으로 1,280만 톤인 한국 대비 절반 수준임)도 한국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침

71) 한국석유화학협회(2023.02.08),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587(2023.02.09. 검색)

72) 한국석유화학협회(2023.02.10),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593(2023.02.16. 검색)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최석우 항만수요예측센터 부연구위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3. 2. 28

편집 겸 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